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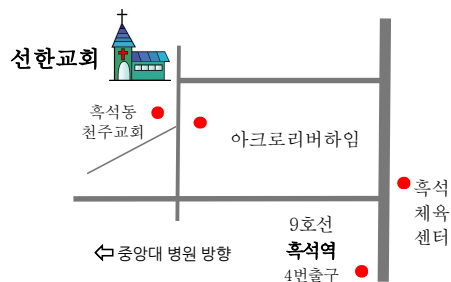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2부 주일 오전	11:00	오전 11:00	요 셉 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오전 11:00	루 디 아 회 오후 1:00
(5째주 셀가족모임)		오전 11:00	마 리 아 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오전 11:00	드 보 라 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오전 11:00	에 스 더 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안 나 회 오후 2: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1:00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한 배 선
	교 육 목 사 정 용 준	협 력 교 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 동 목 사 홍 진 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 희 태, 유 신 웅		
	조 윤 익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영 근, 윤 호 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Good Church
	편 도 선, 이 태 수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엡 5:10)
Carefully determine what pleases the Lord

실 천 사 항 영의 일을 생각하기 기쁨으로 섬기기 복음 전하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 7:17)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3부 오후 1:00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부)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36장 (통일찬송가 36장)		
교 독 문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찬 양 과 경 배	180장 (통일찬송가 168장)		
기 도	윤호중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요한계시록 7장 1~17절	삼하 12:1~6	
설 교	두 번째 환상: 7인심판3 (임춘배 목사)	그래도 널 사랑한다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손정환, 전희영 집사 가정	다 함께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지어져 가네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커피브레이크 모임	

주 일 오 후		오후 3:30	사회: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찬양팀		
기 도	윤국로 집사		
성 경 봉 독	이사야 38장 1~8절		
설 교	이사야의 눈물의 기도 (임춘배 목사)		
찬 양	458장(통일찬송가 513장)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 정용준 목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심 (요 4장 3~10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 안 내**
 -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3) 오늘 점심 봉사는 바울회입니다.
 - 4) 주차 안내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 고 난 주 간 성 금 요 일**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주간을 살아갑시다.
* 이번 주 성금요일 기도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부 활 주 일**
 - 1) 다음 주일(20일) 2부 예배는 부활주일 축제예배로 드립니다.
 - 2)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 3) 전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 3) 부활주일 흑석교회 연합 새벽기도회: 오전 5시 뽕엘교회.
- 헌 신 예 배**

다음 주일(20일) 오후 예배는 조이앤드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천 로 역 정 세 미 나**

안나회 및 에스더회가 필그림 천로역정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 날짜: 5월 20일(화)
* 참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든지 참석 가능합니다.
* 참가 신청: 방성자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	---

찬송 : '갈보리산 위에' 150장(통135)

본문 : 마가복음 14장 43~52절

말씀 : 갓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유대인 무리에게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홀로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는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갖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함께 왔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종교 권력자들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고 시작한 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하며 음모를 꾸몄고 예수를 파는 자는 그들의 일에 함께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는 예수님에게 다가와 입 맞추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줘 체포하려고 했던 신호였습니다. 입맞춤은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였지만 예수를 파는 자에게 이는 위선과 배반의 인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평화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배반의 도구였습니다. 이는 예수를 파는 자와 함께한 종교 권력자들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살인을 꿈꾸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때 누군가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랐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너무나 뜻밖의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과 두려움 속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인의 위협을 두려워해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모든 제자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진리이신 예수를 배신한 것입니다. 다 버리고 간 자리에 말씀은 배신의 이야기 하나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겔옷 대신 베 훌이불 하나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이 체포되려 하자 그것마저 버리고 벌거벗은 채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당혹스러운 이 짧은 기록 속에 등장하는 청년은 체면도, 수치심도 모두 내려놓고 도망쳤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예수를 파는 자와 무리는 평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검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나 실상은 진리를 말살하려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은 '외식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외식의 의미는 '가면'입니다.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가면을 벗는 삶, 진실함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예수를 파는 자와 무리, 제자들과 청년은 모두 배반자였고 배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배신과 배반을 이미 아시고도 그들을 품으신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한 지도자셨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는 회복되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이후 돌이켰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엔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제 목

두 번째 환상: 7인 심판3 (계 7:1~17)

서 론

사도 요한은 천상에서 3가지 심판 시리즈를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7인 시리즈입니다.

본 론

1. 일곱인 심판 (막간 장면)

- (1) 땅 네 모퉁이에 선 4천사와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1,2절)
- (2)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 십사만 사천 (4절)
- (3) 흰옷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선 셀 수 없는 큰 무리 (9절)
- (4)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13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함'(14절)
- (5) 이들의 천국에서의 삶(15-17절): ①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
②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을 치심 ③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 않음
④어린양이 그들의 목자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 ⑤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심
- (6) 7째 인 심판과 1째 나팔 심판이 연결됨

2. 교훈

- (1) 네 천사와 또 다른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 (2)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은 누구인가?
- (3) 인침받고 흰옷입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결 론

천국 소망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윤호중 장로	조계승 장로
2부 예배 헌금	박대수 집사	윤국로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윤국로 집사	
주 방 봉 사	바울회	여호수아회

매일 Q.T.		버려진 돌에서 구원의 반석으로	날짜 : 4월 14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본문	마가복음 12:1~12		
말씀요약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세우고 타국에 간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 종들을 보내나,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에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키는 줄 압니다.		
목상질문 1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 12:1~8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대하는 농부들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나요?		
목상질문 2	버려진 돌, 모퉁이 머릿돌 12:9~12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나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서 삶의 기초를 세우고 있나요?		
한절목상	마가복음 12장 6~7절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들의 소행에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남은 '한 사람' 아들을 보낸다는 말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아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깁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자기 유익을 위해 주인을 배신한 농부들의 모습이 바로 죄인 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걷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의 목숨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맡겨 주신 포도원을 신실하게 일구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공급자요 도움 되신 하나님”	
찬양과 기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새 542),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목상 나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불평 대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고 효율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원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공유했고, 함께 일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팀원들도 각자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은 어려운 부분을 서로 도와가며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맡아 업무 부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짐을 나누자 프로젝트는 좋은 성과를 내며 진행되었고 그 역시 큰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럴 때는 혼자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모세가 혼자서는 백성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워 그의 짐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적절한 도움과 동역자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말씀나누기	민수기 11:10~23
목상포인트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는 생존 문제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생겨난 갈등을 다룹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베푸신 만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고기를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량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보여줍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시고, 백성에게 몸을 거룩히 하여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정리하고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의 양식을 준비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상식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31~32절).
관찰과목상	만나에 대해 불평하며 고기를 요구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적용하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기 쉽습니다. 불만은 탐욕과 불신앙에서 기인하기에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삶의 무게로 버거워하는 우리의 탄식과 간구를 들으시고, 필요한 도움과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역자들과 겸손히 협력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주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소서. 동역자를 보내 주셔서 함께 주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고난의 십자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	날짜 : 4월 18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본문	마가복음 15:25~38		
말씀요약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주님의 좌우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합니다. 제 육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 구시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후 숨지십니다.		
묵상질문 1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15:25~32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예수님이 끝까지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리를 따르는 길에서 조롱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묵상질문 2	예수님의 죽음에 수반된 현상 15:33~38 예수님의 죽음과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누리게 된 복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죽임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숨지시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능동태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라고 외치신 후, 스스로 영혼을 내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말씀의 성취입니다(시 31:5).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 안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말씀을 이루신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거세어도 저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몸을 찢어 구원의 길을 내신,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신 주님을 제 말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매일 Q.T.		사랑의 새 언약으로 초대하는 만찬	날짜 : 4월 15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본문	마가복음 14:12~26		
말씀요약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를 성안으로 보내, 예비된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며 자신의 몸과 피라 하시고, 식사 후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묵상질문 1	배반을 통한 구속의 성취 14:12~21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할 자와 유월절 만찬을 함께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신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나요?		
묵상질문 2	피로 맺은 새 언약 14:22~26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떡과 잔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만찬을 할 때 내가 기억하고 다짐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마가복음 14장 24절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의 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게 했습니다(출 24:8). 예수님은 불완전한 짐승의 피를 그분의 피로 대신하십니다. 아담의 죄(불순종)가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했으나, 예수님의 피(순종)는 많은 사람을 의인 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자유와 생명, 승리와 기쁨을 누립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악한 일까지도 구속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저를 구원하시려고 피로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할 때마다 제가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매일 Q.T.		순종의 기도로 마주하는 십자가 고난	날짜 : 4월 16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본문	마가복음 14:32~42		
말씀요약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 다시 가서 동일한 기도를 하십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왔으니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목상질문 1	기도하시는 예수님 14:32~36 십자가의 두려운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나요?		
목상질문 2	잠든 제자들 14:37~42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 내가 실천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마가복음 14장 38절 기도로 준비해야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은 마음으로는 예수님 뜻을 따르고 싶었지만, 육신의 피곤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단한 경건 훈련(말씀, 기도)을 통해 육신의 연약함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격려하십니다. 주님의 격려는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에 다시 서게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과 마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인생의 여러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 무릎 꿇게 하소서.		

매일 Q.T.		진리와 정의를 외면한 불의한 판결	날짜 : 4월 17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본문	마가복음 15:1~15		
말씀요약	빌라도는 많은 고발에 답하지 않는 예수님을 놀랍게 여깁니다.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명절 전례에 따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지 묻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된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그들의 요구대로 합니다.		
목상질문 1	침묵 속에 드러나는 진리 15:1~5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불의함 가운데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 내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무리의 선택 15:6~15 무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외부의 압력이나 대중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선택할 정의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마가복음 15장 11절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요구합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다른 아버지의 아들을 원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주님’으로 만들려고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나’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성도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수많은 배반과 질시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잠잠히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의 판단에 휩쓸리지 않도록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